후원회소식

통권 175호 | 발행일 2006. 5. 16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종속된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5월4일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대추초등등학교에 대규모 폭력침탈이 벌어졌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하여 학교건물 안에서 항거하고 있는 지킴이들을 진압하고 있으며 건물옥상에서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사제단과 임종인, 천영세 의원등이 마지막까지 학교를 지키고 있다.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지매 빨치산 박선애, 박순애 선생 안진걸 • 5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성환, 문상현 • 9 / 그 누가 민중의 생존권으로 거래하라 허락했는가 김환진 • 11 / 시한부 근로계약을 반대한다 • 13 / 회원마당 · 산행기 김환진 • 15 / 일립니다 • 17 / 감사드립니다 김호현 • 18 / 축시 · 마음의 편지 조순덕 • 19 / 시사만평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2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 재정 보고 • 3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su@hanmail.net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종속된 행정 대집행

-황새울 들녘의 철조망을 당장 걷어내고 모든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5월 4일 여명이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대열이 대추분교로 모이고 있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성난 얼굴로 달려 왔다. 이미 이곳 주민으로 함께 해오고 있는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예고에 맞서 평화미사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평택지킴이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전국에서 달려온 농활 대학생들이 새벽까지 결의대회를 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긴급상황의 통보를 받고 밤새 달려온 평택 범대위 소속 성원과 5?31 지방선거를 잠시 접고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함께 했다. 비정규 법안 처리 등 긴장을 풀지 않고 있던 노동자들이 의혈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달려 왔다.

행정대집행 저지 결의대회 사회자가 긴급 상황을 알렸다. 대추분교 동북쪽 내리방면과 서남쪽 도두리 방면에서 군?경 합동작전이 시작되어 대추분교와 황새울 들녘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고 했다. 원정 네거리에서는 대학생 8명이 군 병력을 실은 관광버스 20여대를 맨몸으로 가로막아서고 있다고 하여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의대회는 이어졌다. 필자가 연단에 올랐을 때 마침 맞은 편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너머로 붉은 해가 뿌연 아침 안개 속에 둥글게 모습을 내비치고 있었다. '여명'이란 말이 떠올랐다. 어둠을 걷어내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고 휴면을 털고 평화와 삶을 위한 창조적 노동이 시작되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생동의 이른 아침에 캠프 험프리 놈들이 낄낄대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끼리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도 경찰도 이곳 주민들이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모두가 이 땅에 수천 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한핏줄의 공동체 성원이 아니던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평화와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 성원 모두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함께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평화와 생명의 땅을 외세의 침략기지로 내줄 수 없다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 권력이 '작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참담하고 침통했다. 일제에게 약탈당했다 되찾은 땅을 미군에게 다시 빼앗겨 쫓기면서 황량한 갯벌을 새로 옥답으로 일궈놓은 황새울에 무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팻말과 함께 철조망을 치려하며, 주민들이 허리띠 조이며 주머니 돈 모아 학교를 세우고, 나라에 기증하여 자손들의 교육장이 되게 했던 대추 분교에 대한 침탈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황새울을 지킵시다.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킵시다. 정의 평화를 위한 인류의 양심으로 민족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온 겨레의 염원을 맡아 이 역사적 과제를 다 합시다.'

그러나 결의대회는 이어질 수 없었다. 내리쪽에 전진 배치되었던 노동자, 농민 등 평택 지킴이들이 엄청난 군?경 병력에 밀리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뛰쳐나갔다. 사회 원로들과 일부 활동가들이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하늘에는 군 헬기가 쉴새없이 철조망을 나르고 있었으며, 경찰 헬기는 학교 주변을 저공비행하며 세찬 바람과 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원정 나갔던 대열이 '학교 사수'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교정 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수천 명 전투경찰이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지휘자들의 작전 지시방송, 전경들의 기합소리, 헬리콥터의 귀청을 깨는 프로펠러 진동음 등 이미 대추 분교 일대는 전쟁터가 되고 있었다.

경찰 병력 115개 중대 13,000여명 수도군단 산하 여단과 700 특공연대 소속 등 군병력 2개 연대 약

3,000명, 용역 1,200여명이 제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합동작전명은 공교롭게도 '여명의 황새울'이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에 투입된 것은 5?18 학살 이후 처음이었다. 경찰의 최후통첩 같은 협박 방송이 하늘과 땅에서 강한 파열음을 내며 고막을 울렸다.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연행 하겠다'고. 그리고 침탈이 시작되었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원로들과 활동가들은 폭력 침탈에 맞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사나운 진압군으로 변한 우악스런 폭력이 연약한 여성을 비롯한 지킴이들을 강제연행하고 있었다. 함성과 함께 비명이 연이어 울렸다. 끝내 정문 앞에서만 80여명이 '미란다원칙' 고지 따위는 무시된 채 폭력연행 되었다. 울타리 아닌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던 노동자, 청년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등 평택 지킴이들은 10배도 훨씬 넘는 방패와 곤봉, 최루 분무기 등으로 무장한 전투경찰에 밀려 좁은 학교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쫓기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경찰의 무차별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뒷머리를 방패로 찍혀 피투성이가 된 채 쓸어졌는가 하면 팔뚝골절상, 이마가 찢어진 사람, 20대 여성은 목봉에 맞아 아랫니, 윗니가 부서졌으며, 달아나는 시위대를 뒤쫓아가 곤봉으로 내리쳐 졸도되는가 하면, 여성은 연행 과정에서 옷옷이 벗겨지는가 하면 성모독 행위도 자행되었다. 취재하던 경향신문, 한겨레 21을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진압지휘자 핸드 마이크에서는 "무조건 까버려! 깔아뭉개!"라고 소리치고 "그래 잘 한다. 전원 연행해!"라며 독려했다. 진짜 땅을 빼앗아 침략기지화 하려는 캠프 험프리 놈들이 쾌재를 연발하며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코앞에서 국가 폭력이 민족적 양심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애국 충정을 이렇게 개 패듯 야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학교 침탈과정에서만 130여명이 크게 다치고 있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자행된 범청학련 대축전 현장의 침탈과 폭행 강제 연행의 재판이었다.

문정현 신부님과 사제단은 이보다 앞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 사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이제 사제단 11명과 학교 2층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는 노동자, 민주노동당원, 청년 학생들이 점령당한 고도에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었다. 반면에 3~4천의 전경과 사복 용역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장악한 경찰은 경찰 살수차 3대, 트럭 5대, 소방차 9대, 견인차 7대, 구급차 4대, 포크레인 2대, 매트리스 24개 등 각종 진압 장비를 투입하고 2층과 옥상에서 농성하는 지킴이들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가의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이 뿌리 채 뽑혀지고 촛불 문화제 장소였던 비닐하우스, 무대장치 등 시설물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옥상에 올라가 사제단 농성에 함께 했다. 2층 교실 안에서는 "폭력 경찰 물러가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올해도 농사짓자!"등 결의의 함성이 쉴새없이 터져나왔다. 침탈자들은 건물의 앞뒤에 매트리스를 깔고 살수차를 건물 가까이 대놓는가 하면 체포조로 보이는 전경들이 대오를 짓고 있고 전투복 차림의 여경들도 동원되었다.

총지휘를 하고 있는 사복이 작전지시를 하고 있었다. 오후 1시 50분쯤 살수차에서 세찬 물줄기가 뿜어나왔다. 네 가닥 물줄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과 교실에 사정없이 쏘아졌다. 건물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음은 충분히 짐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는 선봉대 결사투쟁 구호가 터져나왔다. 옥상 사제단들의 분노한 포효가 들려왔다. 이어 농성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교실마다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어디 갔어! 폭력 현장 지켜달라! 흙먼지와 피투성이 얼굴들이 끌려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연행되면서도 계속 구호를 외쳤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화와 생명의 땅 지키자!

2층 교실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소리통! 우리나라 주인이 – 미국인가 – 국방장관은 – 어느 나라 장관인가 – 왜 – 우리가 – 운동장에서 밤새우고 – 아침내내 두들겨 맞아야 하는가 – 폭력 경찰 물러가라!" 여성 농성자 교실만 남긴 채 전원 연행한 뒤 소강상태

가 이어졌다. 소방 사다리차로 옥상 사제단을 끌어내려 했다. 이미 경찰들이 옥상에 올라가 사제단과 의원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단의 단호한 입장에 경찰은 그대로 내려왔다. 다시 여성 농성자들을 연행하였다. 자지러지는 외침이 이어졌다. 창살에 매달린 여학생이 계속하여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찾고 있었다. 끝내 여성 지킴이들도 모두 끌려 내려왔고, 맨 나중에 나온 바로 창살에 매달려 저항했던 여학생은 크게 다친 듯 걷지도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 갔다. 4시 반이었다.

5시. 경찰의 강제 해산을 물리쳤던 사제단과 의원들 13명이 스스로 내려왔다. 사제단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조건으로, 새로운 싸움을 위해 내려왔다. 의원들은 국방장관 퇴임과 미군기지 확장 계획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경찰은 학교 안에 있던 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을 내몰고 육중한 포크레인으로 학교 건물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추리 주민들이 오열하였다.

이렇게 대추분교에 대한 이른바 행정대집행은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낸 채 끝났다. 그리고 황새울 넓은 들녘은 10,000여 군?경 합동 작전으로 29km에 이르는 철조망이 쳐지게 되었다. 평택 지킴이 524명이 강제연행 되었고, 400여명이 크게 다쳤다. 저들은 이른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미국의 군사 패권전략에 종속된 사대매국 행패임을 애써 모른 채 마치 계엄 상태처럼 활개치고 다니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러나 불의가 이길 수는 없었다.

대추분교 침탈로 황새울 지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택 싸움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저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팻말을 세웠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황새울 들녘은 군사시설도 군의 작전지역도 아닌 평화로운 생명의 땅일 뿐이었다. 더구나 인류가 지향해 온 정의?평화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해치는 외세의 침략기지화는 민족적 양심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 손으로 일궈온 생명의 땅에서 어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뜻을 외면한 채 마치 돈을 더 요구하려는 듯이 또는 외부세력의 부추김 따위로 왜곡하고 있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또한 온 인류 양심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국주의, 군사 패권주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만을 내세우는 정부 당국의 맹목적 굴종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대추분교 등에 대한 폭력 침탈을 전해들은 각계각층이 분노하고 일어섰다. 바로 서울대책위는 국방부 앞 규탄집회, 청와대 앞 규탄항의 기자회견, 1천여 명이 함께 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대추리 평화공원에서는 폭력 침탈 행패를 규탄하고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새로운 다짐의 611번째 주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그리고 6일에는 2,000여명이 도두리-대추리 길을 가로막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수십 년 오간 평화스런 마을길을 복원하며 대추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가 폭력은 다시 이어졌다. 막혔던 길을 내고, 평화 촛불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시민 등 100여명을 또 다시 잡아갔고 100여명이 크게 다쳤다. 이렇게 5~6일 동안 624명이 연행되어 60여 명에게 영장신청을 하고, 16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추가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팽성 주민대책위 김지태 이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조를 가동시키고 심지어 문정현 신부님에게도 출두요구서를 보내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똥 싼 놈이 성내는 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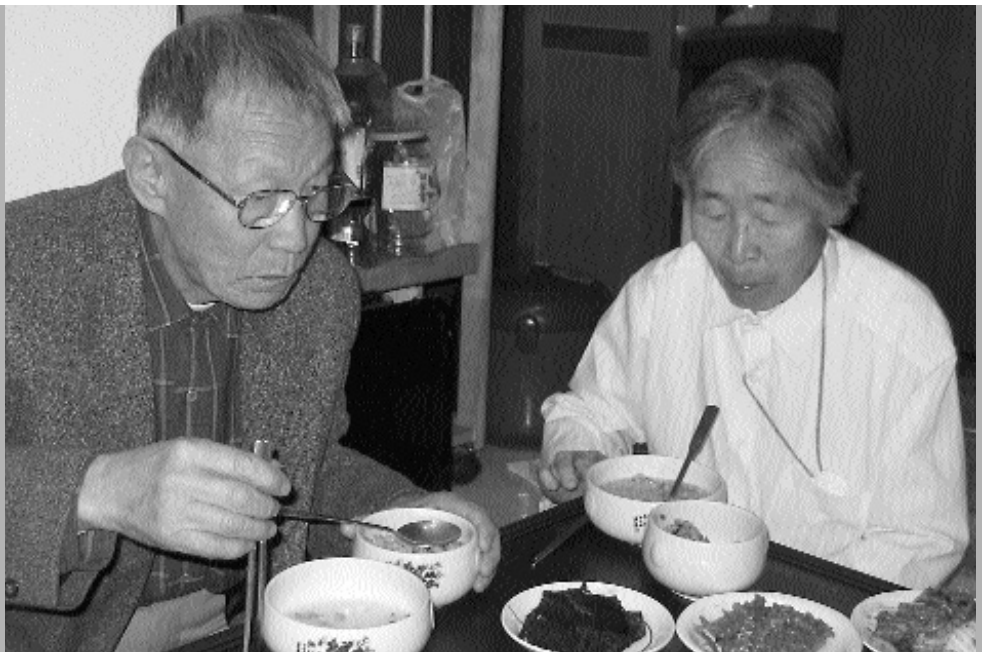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과 편법으로 설정한 황새울 들녘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폭력 침탈을 자행한 군·경 책임자는 물러나야 하고, 팽성 지역에 배치된 군·경 병력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평택 지킴이들의 석방과 새로운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는 조치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내 여생의 소원은 미군이 이 땅에서 깨끗이 철수하는 것을 보는 것"

– 지금도 '전사'로 살고 계시는 변숙현 선생님(83)을 만나다

안진걸 | 코리아포커스 기자, true@coreafocus.com



83세의 고령임에도 여전히 열정적이신 변숙현 선생. 정정한 기품에 반짝이는 눈망울에 청년, 지식인, 혁명 전사로서의 여러 모습이 체현되어 있다.

ⓒ 안진걸 / 코리아포커스

변숙현 선생과의인터뷰는지난호에 이어 게재되는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그 후로 남편과는 어떻게 종종 만나셨나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원래 김제군당 소속이었는데 장수군당 책임자로 갈 때 4년 만에 잠깐 본 게 전부지요. 입산해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깨워요. 그때 시동생 한 분도 함께 입산해 있었는데, 둘이 어서 오라는 거에요. 그렇게 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4년만에 처음이자, 삶에서 마지막이 되 버린 아침 한 끼를 셋이서 같이 먹었어요. 그 후에는 오다가다 잠깐봤지만, 남들이 부부간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자기 일만 서로 열심히 했지요. 악수도 오히려 잘 안하고. 51년 봄 토벌대의 공세가 심해서 지리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순창군 동계면이 깨지면서 비트(은신처)로 들어갈 때였는데, 선이 자꾸 끊어지고. 그때 지리산으로 가는 일행을 만나서 남원군당 사람들이었는데, 지리산으로 함께 간 것지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내가 지리산에 있는지 알고 어서 본지로 돌아가라고 연락을 보내왔어요. 피난민처럼 피해 다니냐고 꾸짖으면서요, 아주 냉정했어요.
난 당시에 지리산 달궁에 있었는데, 남편은 뱀사골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만났어요. 사적으로 만날 일 없다, 나중에 당당히 만나자는 마음이었지요.

그 후로 전 다시 전북도당으로 돌아왔고 남편과의 소식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북으로도 안 갔고. 잡히지도 않았고. 아무의 눈에도 안 띄었어요. 다만, 어느 비트엔가 중요간부 넷이 은거하고 있었는데, 변절자가 있어가지고 비트를 습격당해서 거기서 전원이 자폭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난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고 믿어요. 남편은 아마 토벌대에게 잡히는 치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에요. 남편은 그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남편 얼굴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결국 언제 어디서 죽은 줄은 몰라요. 유골도 무덤도 없지요.

– 그럼, 그때 아기와 함께 입산해 계셨나요?

"아기와 함께 입산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우는 빨치산 구역에 있는 민가로 입산한 것이고요, 전투원이나 저같은 정치요원으로 입산한 경우는 불가능하지요. 아기는 시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왔어요. 그때가 4살 때였어요. 아이가 혼자 밥 떠먹는 것을 보고. 이젠 떼어놓고 가도 되겠다 싶었죠. 시부모님도 계셨고… 어서 빨리 조국해방, 인민해방 전쟁과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입산하게 됐어요."

– 그래도 네 살배기 아이를 떼어놓고 입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제가 산에 있을 때, 시어머님께서 '네가 와서 애를 키우면 안 되겠느냐?' 하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해질 무렵 문 앞에 앉아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애 엄마 어딨냐' 고, '와서 키우라고 그런다' 는 말씀과 함께 간절한 호소를 하셨지요.
그때 '저는 돌아와도 애도 못 키우고 죽고 말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양반 집안에서만 살아서 대접만 받고 살았어요. 만주에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자랄 때는 상민을, 노비들을 '민촌것' 들이라고 비하하고,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을 제일 천대시하고. 갑오농민전쟁 때 실패를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모두 천대를 받았어요. 나라에서 다 잡아 죽이니까, 인간대접도 못 받는 독(항아리) 만드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나이든 노비들이 저보고 작은 아씨, 작은 아씨 하는데, 의문이 들었지요. 종들도 인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남편보고 물었어요. '종은 무엇이고, 독 만드는 사람은 또 뭐냐?' 알고 봤더니 시가 할아버지가 독 만드는 곳에서 살아남아서 남편까지 온 거에요. 시가는 천도교를 믿고 있었죠.
그런저런 자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가 하나만 키우고 있어서는 세상에 엄청난 차별과 모순, 억압을 타파하기 어렵겠구나.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아이 떼어놓고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야 부모는 죽더라도 너는 좋은 세상에서 산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억압과 차별은 영원히 대물림된다. 그래서 뛰어든 거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한테 정을 안줘야 한다, 그래야 떠날 수 있다. 떠나려고, 뛰어들려고, 아이한테 정을 안줬어요. 그래도 젖먹이 살게는 해줘야 하니 4살 때까지는 버텼어요. 모진 세월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말씀은 아들이 커서도 못해줬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냉정한 엄마였네요.
그러나 당시 시대상에서 절박한 심경이었어요. 제 참된 삶의 자각이 하루라도 빨리 조국해방, 인민해방 투쟁에 뛰어들고 싶게끔 만든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라' 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떼어 놓았어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 그 이후는 어떻게 되셨나요?

50년도에 입산해서 활동하다가 52년도에 토벌대에 의해 생포됐어요. 남원 수용소로 갔다가 광주포로수용소로 갔지요. 거기서 6개월 살았죠. 빨치산은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군법재판을 받아서 대전교도소로 갔어요. 갔더니 박선애-박순애 자매가 잡혀 있데요.(4월호 박선애 선생님 인터뷰 참조) 두 사람

은 1월 달에 잡혀있었고, 전 2월에 잡여왔어요. 재판은 박순애 선생하고 같이 받았죠. 재판받을 때 방청객은 없고, 사형구형을 받았어요. 옆에 M1총으로 무장한 무장대가 있었어요. 바로 사형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그러나 선고는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전교도소로 갔다가 다시 청주교도소 갔지요. 그렇게 청주교도소에서 옥살이를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동생이 군대에 있었는데, 동생 친구가 누나는 뭐하냐고 어느 날 묻더래요. 그래서 군법재판받고 수감 중이라고 했더니,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며 서류는 어떻게든 할 테니 국회의원 탄원 도장만 하나 받아 와라고 해서 일이 어떻게 잘 됐나봐요. 청주교도소에서 9년째 옥살이하고 있는데, 60년도에 출소하게 됐어요.

– 나와 보니 아이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60년도에 나와 보니까. 벌써 14살이 돼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넷째 시동생이 곡성에 살았는데, 거기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9살때까지 9살까지 키우시다가 시아버님들이 돌아가신 후 넷째 시동생이 키워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셋째였지요. 입산한 시동생은 다섯째였고요.
그때 친부모님은 장성에서 부안으로 이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함께 부안으로 가서 부모님하고 지냈는데, 경찰이 계속 괴롭히고, 동네에서도 빨갱이라고 살기도 어렵고 해서, 당시에는 지역을 옮기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고는 아들과 함께 그냥 서울로 올라와버렸어요. 그때가 73년이에요. 당시에 친정에 돈이 좀 있어서 서울에 대충 정착을 했어요. 거기에도 경찰들이 와서 괴롭히더군요. 그렇게 경찰들이 괴롭히니 집주인이 세도 안주고… 그래서 74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성남으로 갔어요. 마침 군에 있는 동생이 성남에 땅 사놓은 것이 있어서 가게 됐죠. 여기를 제2의 고향을 삼자,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때 동생이 20평 땅을 빌려줬는데, 그 위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살게 됐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나이 50이 넘어서 성남에 정착했어요. 아들도 어느덧 28살이 되었고요. 아들은 부모가 없어서 제대로 학교도 못다니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취직도 안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다행이 어떻게 직장에 갔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아 지금 손자 2명도 같이 살고 있어요. 손자들이 다 장성했지요.

– 남편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죽은 날을 모르니 생일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남편이 죽은 곳도 모르고, 유골도 없고… 지금도 지리산에 가끔 가지만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넓고 넓은 지리산 어디에서…

– 아드님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겠네요, 고통도 정말 컸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평생 동안 너무 고생만 시켰어요. 그게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해요. 정말로 낳지 않았어야 했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현재 나이 60인데,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한 장 없어요. 만주에서 오자마자 지하좌익 활동하면서 사진하나 못 찍었어요. 그나마 결혼사진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입산한 후에 탄압을 피해서 사진도 없앴어요.
그래서 사진도 하나 없는 것이죠. 아들은 그렇게 14살이 되도록 어미와도 떨어져 지냈지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빨갱이 자식이라는 놀림이나 공격도 엄청 받았고요.
지금 아들이 많이 아파요. 이제 60인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전에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부모 원망을 하네요. 아들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지요.
아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노동을 하더라도 감시를 받았어요. 너무 미안해요. 평생 고생하다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세상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우리가 없을 때 빨갱이소리 듣고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산했을 때 시누이가 아들이 없었는데, 부모가 죽어서 못 오게 되면 형님가로 입적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었지요.

– 손자들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나요?

당연히 손자들이 묻지요. 왜 할아버지는 묘도 없고, 사진도 없냐고… 지금은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손자들은 특별하게 운동같은 것은 안해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머니, 운동현장에 다니는 것은 좋은데, 애들한테 영향만 끼치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런 운동이 있는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정도는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도 제가 운동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요. 뜻이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 남편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잘 안내요. 중매 결혼해, 봉건사상의 영향으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둘이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남편도 말수가 적은데, 또 수줍은 색시를 만나서…
따지고 보면 같이 석달도 못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박태원인데, 남편하면 무감각해요. 근데, 박동지라고 하면 생각히 번쩍 나요. 당시에서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 이가 생각나서 가슴이 찡해요. 나를 삼년을 기다려서 결혼한 남편. 남편 유골이라도 발굴했으면 하는데… 장소를 모르니까 못 찾고 있지요. 혼자 스스로 그래요. '변숙현, 넌 네 남편도 못 찾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운동에 뛰어든 것도 남편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일제로부터 해방했듯이 미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민은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 그 불을 남편이 확실히 붙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아니 박 동지는 조국해방·인민해방투쟁의 선배이자 존경하는 동지였어요.

– 이야기를 듣다보니 남동생이 참 많이 도우신 것 같네요.

남동생? 날 평생도운 남동생도 가슴 저리게 아파가지고 있어요. 몇해 전 쓰러져서 일산에 사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너를 살려줄 길이 없구나'하고 서러워하지요. 아픈지 3년 됐는데, 그 전엔 사흘이 멀다하고 안부전화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씩은 찾아오고. 우리 남동생은 군인이었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 많이 도와줬지요. 내가 2005년도 가을에 평양엘 다녀왔는데 남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듣고 좋아하데요. '몸이 이래서 여비도 못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 선생님 한쪽 손은 의족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산에 빨치산으로 있을 때 동상이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에서부터 악화가 됐어요. 진물이 나고 에리고… 그런데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출소해서 나왔는데 따뜻한 데 가니까 더 덧이 난 것에요. 부안에 있는 시골병원으로 갔는데, 절단해야 된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병원에 가면 자르지 않아도 됐는데… 결국 손목을 잘라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계에 다쳤다고 했지요. 당시에 손이 너무 아팠어요. 손을 막 처음 자리고 앞으로 살 일이 갑갑해서 자살도 고민하고 하다가 내가 여기에만 정신을 쓰면 안된다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편해지데요. 그때가 출소한 그해 60년이에요. 부모님께는 다시 한 번 불효를 저지른 것이죠.

– 평생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웃음) 남들이 쉽게 살아라고,

재혼도 해봐라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봉건적인 것 때문도 있고, 박동지하고 소중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이죠. 봉건사상이란 것이 매우 나쁜 것이지만, 한편으론 제가 그때 배운 충이나 효같은 도리들이 사람이 지조를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조국, 인민, 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가는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첫 마음을 지켜온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조국이든, 남편이든 배신하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죠.

– 청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빨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해요. 가능하다면 다 같이 한 몸으로 일어나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해요. 이제 외국군대는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전 죽을 때까지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제 생의 가장 큰 긍지이자 보람이에요. 우리 청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또 함께 활동하고 싶어요."

–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야죠. 제 죽기전에 최고의 바램이 있다면 미군을 이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맨날 대추리에 가는 거죠.
제발 그 바탕위에서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인민들이 주인되는 사회였으면 해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앞장서서. 인생의 막바지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성남에 아들, 손자랑 같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되면 또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옮겨놓고서라도 제대로 투쟁해보고 싶어요.

수감중인 동지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

김성환 | 영등포교 13

권오헌 선생님께

건강하신지요 낙성대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회 일꾼들에게 인사 전합니다.
다시한번 책 출간 인사 드립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에 갇혀있어 미치지 못한 마음을 위로 했습니다.

4월10일 일요일 한해넘어 긴 여행 봄 나들이 끝에 영등포교도소로 이감을 와서 2층 독거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인지라 반갑기는 하지만 이곳이라고 징역살이가 별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도착 첫 날 소지품 검사시부터 한판 했지요
이곳 독거방은 공기순환을 위한 작은 창문이 밑에 있을뿐 벽이 막혀서 답답하니 지낼 것 같습니다.
법정구속되어 울산, 부산 이제는 이곳에서 독거방에 갇혀 분노하는 것은 방이란 것이 이곳에선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의 처지를 외면하고, 오직 가두어 두기 위한 권력자의 편리함과 소위 안전함에 근거한 비인간적인 수용시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곧 정치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청하는 교도관들의 비주체적인 비명소리일 뿐 입니다.

3월말경 영등포구치소에서 전해투 변외성동지의 단식소식을 너무 늦게 알아 같이 싸우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접견을 허용하라고 공안수 사이의 소통을 허용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더는 격주 토요일 운동, 일요일등 휴일 운동금지 등등 갇혀 있는 자유마저 억압하면서 일손부족과 안전을 핑계로 비인간적인 수용대우를 하면서도 교도관들은 겉으로나마 주5일근무를 즐기고 있는데 대한 항거였습니다.

과거 선배, 열사들은 민주주의 제 권리를 위한 싸움을 통해 징역을 살며 소내 비인간적인 관행과 처우에 맞서 인간성을 위해 싸웠다면 천민자본과 맞서 싸우다 징역사는 나 역시 이해하고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권단체에 구속노동자 등 양심수 동지들에게 소내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소내 문제를 안과 밖에서 고쳐나가기 위한 싸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갇혀사는 동지들의 순간적인 분노가 단식 등의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닌 힘을 모아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 정치권과 법무부를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헌 선생님.
징역살이가 길어지니 말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서신에 부탁드린 선배들의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에 대한 책자와 자료를 보내주십사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계시리라 알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젠 영등포교도소입니다.
무탈하니 건강하심을 항시 기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선생님의 건투를 바랍니다.

2006년 4월 11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김성환 드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오정록 | 서산구 103

안녕하신지요.

그 동안 보내주신 소식지와 후원금은 잘 받고 있습니다.

석달째가 되는 지금에서야 편지를 띄운다는 사실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병역거부로 구속이 되면 민가협에서 후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혹은 자연스럽게만 생각한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요즘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2004년 여름에 대추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시작되었던 인연이 제가 이렇게 1.09평의 독방에서 TV를 보면서 끝나버리는건 아닌가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농민들의 투쟁을 보상금 문제로 몰고가는 뉴스가 짜증나서 TV도 잘 보지 않습니다.

김지태 이장님, 김택균, 송태경 아저씨 등 대책위 분들은 모두 여유와 유머가 있고, 농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 연대에 대한 열린 태도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었거든요.

병역거부한다고 평택에 소홀했을 때 광화문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신 모습도 생생하구요.

제가 이 곳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도 징역 스트레스입니다.

그럴수록 애써 여유를 가져보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이번엔 반대로 사회와의 격리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좌충우돌하다가 솔소하게 될 듯 합니다. ^^

민가협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2006. 5. 5.

오정록 드립니다

4월의 감옥에서

김성환

사랑하는 이여
그리운 사람아
교도소에 비가 오면
한 서린 감옥은 비릿한 흙 냄새를 풍기며
봄이 왔음을 알린다네

이미 사동 뒤뜰에는 풀이 한뼘 넘어 자라있고
쥐구멍엔 쥐새끼 들락이고
햇살에 늘어진 검은 고양이는놀란 눈으로
물끄러미 경계하며 하품으로
봄임을 알린다네

한 해 사계절을 겪고 다시 맞는 봄사월은
어머님 기일 1주기인데 못난 자식은 철창에 갇혀
봄을 맞이하고 있다네

철창넘어 들려오는 비명소리, 절규, 아우성 소리는
천민자본의 세상을 끝내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끝간데 없는 탄압과 착취, 기만과 위선으로 짓밟힌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은
물신의 세상을 없애는 싸움을 하자하네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다 현재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계신 김성환동지께서 옥중 시 한 편을 보내오셨습니다. 화창한 봄임에도 차가운 감옥에서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계신 동지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후원회소식'에 올립니다.
–편집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온당치 못하다.

편집부

검찰이 소위 '만경대 방명록 사건', '필화사건'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강정구교수를 기소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건발생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정구교수를 처벌하려 드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누누이 주장되어 왔었고 각계각층에서 기소중지를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의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강정구교수에 대하여 4년형을 구형하여 아직도 구시대 악법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검찰

검찰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학문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명제 자체는 틀리다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는 강정구교수가 과연 학문의 자유를 빌미로 하여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는가? 라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성역 허물기'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고 되었던 글들의 내용은 강정구교수 자신의 수십년에 이르는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다루어 지고 있는 내용들이 검찰의 주장과 같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심한 이념논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통일',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오갔던 것이 사실이다.

강정구교수의 주장은 그 중에 하나이고 또한 극심한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북의 입장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냉전성역' 이라는 울타리에 가로막혀 범접하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접근하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한 것으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학문연구의 개가로 평가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설파하고 있다?

검찰은 강정구교수가 북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우연의 일치를 마치 필연적 일치인 것으로 등치시켜 왜곡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검찰은 "분단60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북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강정구 교수가 2004년도부터 이야기 했던 바이고 북의 경우는 2005년 신년사에서부터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6·25 전쟁에 대해 탈냉전적 시각을 갖는 것은 위법하다?

검찰은 6·25 전쟁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전후부터 지금까지 남한사회를 지배해왔던 이데올로기적 정의에서 벗어나는 이견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하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정구교수는 전쟁의 성격은 "전쟁 주체의 목적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가지 사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듯이 6 · 25전쟁을 놓고도 '통일전쟁', '분단 고착화 전쟁', '이념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성격지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6 · 25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북에의한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라는 규정만이 정답이고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반학문적 반지성적 파시즘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강정구교수는 전쟁의 성격은 "전쟁 주체의 목적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가지 사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듯이 6 · 25전쟁을 놓고도 '통일전쟁', '분단 고착화 전쟁', '이념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성격지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6 · 25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북에의한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라는 규정만이 정답이고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반학문적 반지성적 파시즘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평화지킴이', '연방제는 무조건 적화통일이다.', '북방한계선은 영해선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강정구교수의 반박 역시도 역사자료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 논거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인데 학문의 다양성을 전혀 인정치 않고 오로지 획일적인 표준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면 다 사법처리 해야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야하나?

지금까지의 강정구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자면 검찰의 기소내용이나 수구세력들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강정구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학문연구 성과물 발표'이다. 이는 '다양성의 원리', '학문의 자유' 등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다.

물론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 상이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빨갱이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검찰이나 수구세력들의 생리란 말인가?

강정구교수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 주장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면 강정구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흔히들 하는 말처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 국가보안법이란 철퇴로 후려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드는 것인가?

또한 공판과정에서와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정구교수의 직위해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자리에서 수구세력들이 보여주는 작태를 보고 있자면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제발 부탁이다.

이성을 지닌 같은 인간이란 생각이 들게끔 행동해달라. 그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신봉자라 칭하면서 어찌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단 말인가?

끝으로 "이러한 냉전성역 허물기가 반학문적, 반지성적인 것에 의해 소모적인 진통이 되는 것은 저의 사건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북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느냐를 실천하는 건설적인 진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강정구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구시대 이데올로기적 발상에 의해,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에 의해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의 원리가 구속받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하는 바 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 열려

편집부

지난 4월 19일 오후3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가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양심수후원회원과 민가협, 유가협 회원, 출소비전향장기수, 범민련,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농, 공무원노조 등 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1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호현 운영위원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민중의례가 있었고, 김규철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 권오헌 회장의 오신분 소개 시간이 있은 다음, 2005년 '광복60년 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으로 평양 · 묘향산 등 답사와 비전향장기수로 1차송환 된 선생님들과의 상봉장면 등의 영상상영이 있었습니다.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박기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각계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멀리 제주도에서 고성화 선생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신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권오헌 회장의 제17차년도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감사이신 진관스님의 제17차년도 사업 및 재정집행의 감사보고를 큰 박수로 승인했고 다음으로 모범회원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송세영 선생님과 이기욱 부회장, 박점식, 김재현, 이미선, 나순석, 김수진, 나수자 회원에게 홍근수, 김영옥 지도위원과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헌 회장이 나누어 증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성룡 운영위원의 제18차년도 양심수후원회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큰 박수로 승인하였고 임원선출에서도 총회준비위안을 큰 박수로 승인하였습니다.
감사로는 강정구 교수와 진관스님을 직접 선출 하였고 권오헌 회장은 김규철, 김영옥, 박중기, 홍근수, 노중선 선생님을 지도위원으로 위촉 지도위원, 감사, 회장단, 운영위원, 사무국일꾼, 지역일꾼 등 모두나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후원회와는 별도로 사단법인 '만남의 집' 추진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하였고 이어 대구 · 경북, 대전 · 충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일꾼들이 '미 · 일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에 맞서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열어나가자' 라는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특별결의문을 함께 읽어 환호와 박수로 채택하였고 단국대학교 법사회학회 홍세희 학회장이 읽은 총회결의문을 큰 박수로 채택하는 것으로 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회순서를 모두 마친 후 미리 예약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뒷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8차년도 새 일꾼

지도위원 김규철_범남본 서울시연합 의장
김영옥_범남본 중앙위원, 통일연대조직강화 특별위원장
노중선_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중기_추모연대 이사장
홍근수_평통사 상임공동대표

감사 강정구_동국대 교수 / 진관_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회장 권오헌_민가협 공동의장(다시 뽑힘)

부회장 김지영_김지영내과 원장,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 본부장
김호현_창미디어 대표, 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운영위원 모성룡_홍제현대유치원 원장 / 송경용_신부, 나눔의 집 운영
이득형_회사원, 전 유가협후원회 운영위원 / 이정태_민족무예 경당 이사
장경욱_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조명희_회사원 / 한찬욱_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 사무처장

●8분의 모범회원이 다음과 같이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김수진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이 큰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김재현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민주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한결같은 성원을 다 해주셨고 특히 양심수후원회 대표적 소모임인 옴시롱감시롱 으뜸일꾼을 맡아 하시면서 후원사업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나수자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이 큰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나순석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민주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한결같은 성원을 다해주셨고 양심수후원회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함께하며 헌신을 다하여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박점식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이 큰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송세영 선생님>>>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자주통일 운동과 관련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장기구금 양심수로 옥중 양심수들에 대한 동지적 애정으로 오랫동안 양심수후원사업에 큰 성원을 해 주셨으며 후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 하시어 회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기욱 변호사님>>>회원께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부회장과 법무법인 창조의 대표로 있으면서 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큰 성원을 해주셨고 특히 10여년 동안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으로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송환운동, 양심수 법률자문 등 후원사업에 큰 공헌을 하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미선 회원님>>>회원님께서는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진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이 큰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 감사패를받으신 **김수진 회원님**께 김수진회원님! 회원님께서 수년간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송구스럽게도 사무국에서 회원님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 감사패도 전달해 드려야 하고 그동안 드리지 못한 감사인사도 드려야하는데 방법을 찾지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사무국**(02-874-4063, 016-386-3495)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 특별결의문

미·일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에 맞서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을 열어나가자!

일제패망과 조국광복 61년이 되는 오늘 조국반도에는 미·일의 군사패권동맹이 강화 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영토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미국의 절대적 지원과 엄호아래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최근 독도해역 등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로측량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식민지 지배·수탈에 대한 역사왜곡, 주변사태법, 유사시법 제정, 평화헌법개정시도, 자위대의 국외진출과 공격적인 권력강화, '롯카 쇼무라'의 핵 재처리공장 가동 등 세계 제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제국주의 침략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북에 대한 핵이니 미사일이니 인권시비까지 걸면서 2002년 '평양선언'에서 이미 해결된 이른바 '납치문제'를 들고나와 북인권대사 임명, 인권법제정시도와 각종 무역·경제 제재 망동을 하는가 하면 일부 우익반동들은 미국의 장단에 발맞춰 정권교체 망발까지 떠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땅을 61년이나 강점하고 있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빌미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걸머쥐고 이른바 '5027'등 작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포커스렌즈'등 북침전쟁연습을 해오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일제에 이어 송탄, 팽성 등 우리농민들이 수백년 살며 옥답으로 일궈온 들녘을 강제징발 오늘까지 강점해 오면서 종전의 370여 만평에서 새로 350여 만평을 더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아시아 최대의 침략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난해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파탄내려 위폐니 마약이니 인권이니 근거 없는 대북모략책동을 벌이면서 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경수로 제공문제, '조선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 평화적 공존관계 정상화 조치'를 한다고 한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면 '개성공단'등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사업에 제동을 걸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궁극적으로 대북체제전환을 위한 고립압박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다.

미·일의 이같은 침략동맹화는 조국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깨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가치의 세계전파를 위한 군사패권주의의 또다른 모습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일 안보조약'(1960), '미·일 안보선언'(1996),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 1997), '미·일 공동전략목표'(2005), '신 미·일 안보공동선언'(2006) 등에서 더욱 밀착되고 강화 되었으며 일본방위를 넘어 주변사태로 다시 전세계로 군사패권을 확대한 사례들이다.

우리는 지난날 제국주의화된 미·일의 대 조선침략행패를 잊지 않고 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침략', 1871년 '신미양요', 1875년의 '운양호사건', 1876년의 '병자수호조약', 1905년의 '카스라 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1910년의 '경술국치', 1945년의 미군강점과 남북분단 등이다.

이제 더 이상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어떠한 외세의 지배·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세상을 이룰 것이다.
이제 양심수석방과 후원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민족적 양심으로 떨쳐 일어섰던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은 미·일의 군사패권에 맞서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의 독도침략야욕과 역사왜곡 군사대국화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폐기와 평택 미군기지 확정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일의 대북 적대정책에 민족공조로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6·15 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6.4.29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 광주·전남 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올해도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이용준| 회원

제5회 통영국제음악제. 매년 3월이면 통영에 가지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던 시기인 3월부터 매년 통영에 내려간다. 처음엔 재미와 호기심으로, 이제는 어느덧 의무감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부산의 할머니 제사도 가지 않으면서 통영엔 부지런히 다니는 것을 보면 혹자는 나를 패륜아(!)라고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강산에 통일의 열기가 민족에에 대한 열기가 바라는 마음으로 통영에서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웬 통일이고, 민족에가 통영국제음악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상관이 있다. 먼저 통영을 얘기할 때 윤이상을 빼놓을 수 없다. 범민련 해외본부 초대 의장을 역임하였고. 세계 거장의 면모를 갖춘 작곡가 윤이상이다. 바로 윤이상의 고향이 통영이고, 그 윤이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통영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 역사가 이미 5년째이지만 사실상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9년 <윤이상 가곡의 밤>을 시작으로 2000년, 2001년 <통영현대음악제> 그리고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로 명칭이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도 2003년 한상권 교수님과 송창학, 모지희 회원 가족 등을 필두로 2004년 김재현, 정향숙, 2005년 함윤경, 노혁 회원 등이 삼삼오오 다녀왔었다.

통영은 참 아름다운 도시이다. 부산 같은 큰 해양도시와 달리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통영은 걸어서 온 도시 관광이 가능할 정도이다. 통영에 머물며 구경을 다녀보면 윤이상 선생이 살아 생전에 왜 통영에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영은 많은 예술가를 배출했다. 시인 유치환, 화가 전혁림, 소설가 박경리 등 작은 도시치고 한국에 이름난 예인들이 많다. 정말 통영에서는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직 시장도 세무공무원 출신이지만 정식화가로 등록되어 지금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앞의 시장도 시인이자 수필가였다. 아름다운 작은 바다도시 통영에 가면 노래라도 한곡조 뽑고 싶고, 시라도 한 편 읊고 싶어진다. 그런 곳이 통영이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세계적인 축제 행사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유산, 지역민의 애정과 열정이 필수적인데 통영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윤이상이라는 이름은 세계의 거장과 연주자들을 섭외하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다. 실제로 2002년 1회 행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현악4중주단인 아마티 4중주단이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연주를 진행하였고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역시도 2004년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그 다음해에 연주했다.

그러면 왜 윤이상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독일에서 살다간 윤이상의 삶과 생애를 조명해 보아야 하겠기에 따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무튼 통영은 아름답다. 혹자는 통영은 그냥 잠시 거처 가는 곳이고 거제를 보아야 된다고 한다. 아니, 통영 지역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이상을 즐길 수 있다. 통영 구석구석, 산이면 산, 문화재면 문화재, 재래시장, 섬, 바다 모두가 아름답다.

때마침 오감시롱에서 5월 기행을 통영으로 간다고 하니 또 흥분이 된다. 통영은 내려 갈 때마다 늘새로움으로 다가온다. 미륵산, 전혁림미술관, 남망산, 일주도로, 페스티발하우스, 시장, 청마문학관, 세병관 이런 것만 보아도 1박 2일의 즐거움은 너무 짧게만 다가온다. 그래서 통영을 늘 가게 된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 시기에 가면 좋다. 3월이 딱히 어려우면 11월 음악제 가을시즌 및 윤이상을 기념하기 위한 경남국제음악콩쿠르 개최시기에 가는 것도 권하고 싶다.

통영이 왜 그리 좋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게도 처음인 5월의 통영이 어떨지 정말 기대된다.

진달래의 물결 속에서 4·19의 함성을 듣는다

박미정 | 회원

셋째 주 주말이 다가올 쯤이면 남편은 권오헌 회장님으로부터 산에 가자는 전화를 받는다.

시위현장과 집필, 회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잊지 않고 친히 전화를 주시니 남편은 황송하고 고마울 뿐이라고 한다.

항상 별일이 없으면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남편은 이번엔 날씨도 좋고 아이들 컨디션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하니 나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북한산 입구 양지바른 곳에 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니들께서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고 계셨다. 자주 뵙던 선생님들, 처음 뵙는 분들과 반가움과 서먹함이 섞인 인사를 나눈 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가에는 버드나무들이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홉 살 큰아들과 일곱 살 작은아들은 경주라도 하듯 앞서거니 뒷서거니 일행들 사이를 다람쥐처럼 가뿐히 산을 올랐다. 다섯 살 막내도 엄마 아빠가 양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니 신이 나서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연로하신 선

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오르다 쉬기를 반복하다 김호현씨가 거창에서 가져 왔다는 복분자로 목을 축이며 홍어회를 곁들이니 취기가 도는 듯 했다.

아파트 주위에서 인위적으로 꾸며진 나무와 꽃들로 봄을 느끼다가 그야말로 자연의 힘으로 피어난 새싹들과 꽃들이 자유롭게 핀 산을 보니 봄이 제대로 느껴졌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제때에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를 충실히 하는 생명의 몸짓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산엔 진달래가 등산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진달래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는지 진달래가 예쁘게 핀 곳마다 사진을 찍자며 불러 모으셨다. 분홍색 진달래만큼 화사한 미소가 선생님들과 회원들의 입가에 절로 번졌다.

대동문까지 올랐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적당한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각자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힘들게 올라와 산에서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그 동안 양심수 후원회 산행의 최고령자였던 고 최남규 선생님의 기록을 깨는 83세의 변숙현 선생님은 피로한 기색도 없이 정정하시기만하다. 당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겸손해 하시지만 요즘 한창인 평택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대추리 투쟁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젊은이 못지않은 정치의식에 나로서는 부끄럽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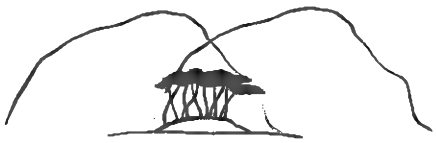
산행과 함께 현 정세에 관한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준비가 안되어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권회장님께서는 10년이 넘는 산행 역사 중 이번만큼 산에 오르기에 최상의 날씨는 없었다며 오늘 산에 오길 정말 잘했다며 아쉬움을 달래주셨다.

이름처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능선을 따라 봄을 만끽하며 산길을 내려왔다.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도룡뇽 알을 발견했다며 알을 만져보고 신이 나서 물장난도 쳤다.

산에서 내려와 4 · 19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러갔다.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혁명영령들께 묵념을 드렸다. 묵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다섯 살 딸아이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기만 한다. 딸아이의 눈에 외세와 분단 독재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젊음을 바친 처절하고 당당한 역사가 들어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열망하는 통일과 민주를 이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세대는 그분들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며 묘역을 둘러보았다.

시대의 모순을 향해 서슬 푸르게 깨어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반성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대추리를 평화의 땅으로

김혜순 | 회원

요즘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모습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 격돌이 예상되던 13일 저녁, 평택으로 차출당해 집들이에 오지 못한 제부(경찰서 근무)를 걱정하던 식구들은 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옮기려 하는지를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알았으면 진즉 반대했을 거라구요. 그만큼 편향적인 측면만을 다룬 언론만 접하고 살면서, 더구나 대추리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3년 국방부가 대추리 수용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주민들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에선 매주 주말마다 이를 위한 촛불집회를 하였고 우리가 그곳 대추분교를 뒤늦게 찾았을 때는 4월 22일, 마침 600회 집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택역을 출발해 물어물어 대추리 근처에 갔을 때 군데군데 미군들이 살았음직한 뜯겨진 집들과 시골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영문표기의 상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벌써 미군기지를 만들었나 의아해하며 가르마 같은 포장길을 따라가 보니 잘 가꿔진 잔디밭에서 조깅을 즐기는 미군과 철통같이 둘러쳐진 철조망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K-16 기지와 아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진위천 사이의 285만 평이 확장미군기지 예정지라 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황새가 차 앞을 막습니다. 빵빵거리지 않고 가만 두어봅니다. 여기가 싸움의 현장이란 곳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농촌 풍경 그대로입니다.

그날 투쟁은 후원회원들과 옴시롱 회원 10여 명,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추분교를 접수(?)한 아이들은 온갖 깃발을 휘두르며 실컷 놉니다. 너무나 한가해서 먼저 도착한 우리는 봉지를 들고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들녘으로 달려가 갓 올라온, 향내나는 쑥을 뜯었습니다. 대추분교를 지나 황새울 들녘으로 나가니 농사를 준비하며 태운 연기와 서해의 붉은 하늘이 아름답게 타올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 땅을 다 내줘야 하다니,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될 생각을 하니 울컥 가슴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마을 초입의 잔잔함과는 달리 황새울 들녘으로 나가는 마을 곳곳에는 화가들이 그린 평화의 메시지와 시인들의 간절한 시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녁 7시가 다돼서 저녁을 먹고 우린 촛불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를 하는 시간에도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뜨는 전투기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평생을 그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불편을 참아왔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늦게까지 진행되었고 전교조 통일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로 미국에 격앙된 목소리를 내게 된 영화인들,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 마을 주민들 등등 곳곳에서 투쟁의 의지들을 모아 함께 했습니다. 대추리에 아예 들어와 산다는 문정현 신부님이 "생활이 있기에 늘 여기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시선을 이곳에 두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달려와 달라."는 말씀에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빚진 맘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수탈의 역사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에게 농토를 빼앗긴 경험이 2, 3차례 있다 합니다. 미군기지 활주로를 건설한다며

미군 불도저들이 나타나 집을 밀어버려서 산에 움막을 짓고 살았고, 마을 앞까지 들어오던 바닷물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일군 땅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 농민들은 시민단체에 휘말려 들어서도 아니고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생각으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곳에 다녀온 지 20여 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문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곳으로 귀를 열어놓고 광화문 집회도 다녀오고 또 군대를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대추분교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혀 흔적도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는 엄마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집회에 가지 말라고 막던 아들도 엄마 갔다 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울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군대를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으면서까지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하려는 이유는 뭘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군으로 재편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는 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면서 미국의 군사전략 틀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는 양상입니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자연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이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북한의 침입을 막는다는 허울 아래 분단을 고착화하고, 최근에는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단순히 용산의 미군기지를 이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동북아 패권구상에 따라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부속물로 우리나라가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뭘 하는 걸까? 언론을 접해보면 다른 나라는 정부에서 협상을 잘해 미군기지를 축소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철조망을 치면서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판 대추리' 인 이와쿠니시는 시장이 나서서 중앙정부와 직접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서 국가나 지역 단체장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건답에 직파한 볍씨가 싹이 올랐는지 못내 궁금해 쪼그리고 앉아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자신의 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대추리에 사는 89살의 조선례 할머니가 미군기지 확장으로 다시는 자신의 땅을 뺏기지 않게 우리 정부는 한번쯤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미군의 군사적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에서 한번쯤은 토지수용 거부안도 내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리지 않도록 공개적인 토론회쯤은 열려야 하지 않은가!!!

장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일 시 : 6월 13일(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품명 : 민족과 운명 제57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편 제6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2년제작, 99분상영)
■줄거리 :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 영화이다.
※ 문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5월 산행-인왕산에 오릅니다

5 · 18 광주민주항쟁의 달 5월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려는 이 계절에 평택을 제 2의 광주로 만들 수는 절대로 없다는 각오를 새기며
양심수후원회의 5월 산행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인왕산 일대를 함께 거닐며 맛있는 점심식사와 시사강연
그리고 평택 대추리 투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는 곳 : 인왕산
■일 시 : 5월 21일(일) 오전 10시
■모이는장소 : 시직공원정문 앞(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직진 3~5분 거리)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를 위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주점이 열립니다.

다년간에 걸쳐 연대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학내 대동제 기간에 후원주점을 엽니다.
젊은 청년학생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꼭 시간 내시어 5월의 활기찬 대학 캠퍼스와 청년학생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일 시 : 6월 24일~26일, 느지막한 시간(하지만, 조금 서둘러 가셔야 좋은 자리를 잡기가 용이합니다.)
■장 소 :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
■문 의 : 김환진(016-386-3495)

김수룡 선생님 팔순을 맞이하여

한찬욱 | 운영위원

김수룡 선생님을 안지는 몇 년 되질 않는다. 아마 2000년 선생님들이 북쪽으로 송환 되시고 난 이후일 것이다. 그러다가 하얀 머리와 수염이 온통 뒤덮인 선생님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자리 등에서 단골로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바로 선생님이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우리사업은 본시 사람사업이다' 에 포섭(?)된 것이다. 항상 먼저 악수를 청하시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례를 먼저 하셨다. 사무실에서 모임이 끝나 가게 될 경우에는 일어나 문밖까지 나와 배웅을 해 주셨다. 후원회에 회비를 내는 것도 운동이라며 매달 빠지지 않으셨다. 갑자기 아플 경우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가방에서 비상약을 주거나 간단하게 뜸을 해주셨다.

내가 진행하던 사월혁명회 민족학교 수업에는 다른 수강자보다 먼저 와 기다리셨고 수업을 빼먹지 않고 개근하셨다. 통일역사기행단의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전북빨치산기행' 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시면서 청년학생도 힘들어하는 회문산, 장안산, 지리산을 함께 오르셨다. 모든 일에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며 솔선수범하는 사람사업을 보여주셨다.

이제 그 선생님이 팔순을 맞이하신다.

선생님은 192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부산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와 함께 도일(渡日)해 오사카 관서 공업학교에서 주경야독하면서 사회주의를 알게 되셨다. 45년 일본 본토에 폭격이 심해지자 고국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건준(뒤에 인공) 산하 국군준비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군준비대는 귀환장병대와 귀환군인동맹이 통합하여 개칭 된 것인데 인공의 무장부대성격으로 민족군대였다. 미국에 의해 국군준비대는 강제 해산되지만 선생님은 46년 입당 후 47년 당 활동과 관련되어 구속된다. 부산형무소에서 나온 후 서울로 올라와 성시백 선생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50년 5월 25일 서대문서에 투옥된다. 6 · 25전쟁으로 6월 28일 서대문서에서 출옥 후 농림성 토지개혁 지도원으로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다 후퇴 시 평양으로 간다. 그리고 53년 정치공작원으로 남으로 내려온 선생님은 곧바로 체포되었다. 15년간의 감옥생활 후 68년 만기 출소하셨지만 75년 사회안정법이 제정되어 선생님은 '전향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다시 구속되어 79년 출소하게 된다. 현재 선생님은 통일광장 성원이자 통일연대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선생님은 칠순 때 해방공간 시절부터 옥바라지로 고생만 시킨 부인을 먼저 땅에 묻고 난 비통한 심회와 감옥에서 권력의 야만적 폭압에 대한 분노 그리고 조국의 자주통일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읊은 시집 「당신을 땅에 묻고」를 발간하셨다.

이후 이번에 나온 팔순 시집 「**산에 묻힌 별들**」은 **고난의 행군, 동지, 삼천리장정, 6 · 15시대**의 네 장으로 묶어 선생님의 지나온 삶을 엮은 시집이다.

지나온 선생님의 삶은 현대사의 질곡을 투쟁으로 쟁취하셨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늙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다. 또 진정한 우리 본심사업은 사람사업임을 몸소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김수룡 선생님! 팔순을 맞이하여 늘 건강한 몸으로 무병장수 하시고 계속 삼천리장정을 하시어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수룡 선생 제2시집 「산에 묻힌 별들」 출판기념 및 팔순 축하 모임

- 일시_2006년 6월 3일(토요일) 오후(17:00~19:00)
- 장소_웰빙 후레쉬 뷔페(02-549-4558)
  (지하철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주최_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문학회
  (통일광장 선생님들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문상뉴스카툰, 2006년 5월 4일자

이성열 통일만평, 2006년 5월 9일자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6년 4월 9일 현재, 민가협 조사집계
노동자, 농민, 재야 등 총 50명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고태환	노동자	건설연맹(경기서부)	울산플랜트노조 집회관련	2006-03-02	집시,폭력			서울구 83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07	대구교 52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	상고중	부산교 874	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2005-05-17	업방,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1	대구교 86	기결
전재환	노동자	금속연맹	12.1 비정규직법안 반대집회	2006-02-25	집시,특공			영등포구 3434	미결
서종석	노동자	금속연맹(대성 MPC)	정리해고 반대투쟁	2006-03-01	폭력			천안구 5570	미결
조성철	노동자	금속연맹(대성 MPC)	정리해고 반대투쟁	2006-03-01	폭력			천안구 5552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융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반대	2005-09-08	폭력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8	미결
박종환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	2006-02-02	특공,치상			수원구 308	미결
이원준	노동자	대구지하철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6-03-15	업방			대구교 80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특공	1년6월	2006/12	대전교1313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파기환송심	부산교 1102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2003-12-22	폭력,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김영훈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파업	2006-04-06	업방			용산서	미결
김웅전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파업	2006-04-06	업방			용산서	미결
배영대	노동자	전국철도노조(영주)	파업	2006-03-26	업방			안동교 1638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투쟁(사회보험 노조)	2006-02-20	업방,폭력			영등포구 3458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5-10-21	집시,폭력			청주교 726	미결
박찬경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철폐 투쟁관련	2006-02-15	업방,공방	6월	항소중	울산구 33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항소중	순천교 278	미결
박정상	노동자	화물연대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13	업방			광주교 3338	미결
김성호	노동자	화물연대(광주)	송신탑 고공농성	2006-03-28	업방			광주교 3336	미결
박종태	노동자	화물연대(광주)	송신탑 고공농성	2006-03-28	업방			광주교 3346	미결
김현만	노동자	화물연대(광주)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13	업방			광주교 3342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상진	노동자	화섬연맹(코오롱)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 30	미결
황윤석	노동자	화섬연맹(코오롱)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 13	미결
최일배	노동자	화섬연맹(코오롱)	해고자 복직 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 22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 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광주교 5009	기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부산구 1516	미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1-19	병역법			영등포구 2524	미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기기소	춘천교 451	미결
최 진	재야	작은 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9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2003-08-15	국보	6년	2007/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구 865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상고중	안양교 1588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항소중	서울구 61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20	특공,공방	1년6월	2006/10	청주여 15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10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62	미결
정용준	재야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반대집회(2004)	2006-01-17	집시,특공			서울구 68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2-17	병역법	1년6월	2006/08	의정부교 1550	기결
김민석	학생	중앙대	한총련불탈퇴(12기),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2006-02-24	국보,집시			의정부교 805	미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5-17	병역법	1년6월	2006/11	김천교 24	기결

01

-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인대책위와 문화예술공동위가 '스크린쿼터 절대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다.

- 실천연대와 제주실천연대(준)의 공동주최로 '4·3자주민중항쟁 58주년 유적지순례 및 4·3자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자주통일 결의대회'를 열다. 유적지 순례는 관적정, 주정공장터(옛동양척식주식회사), 이덕구 산전, 와흘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덕구 산전에서 '4·3자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자주통일 결의대회'를 열고 와흘굴로 이동하는 순서로 진행되다.

- 고 정순덕 선생님 3주기를 맞아 전국연합 회의실에서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양심수후원회원, 민가협회원, 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고 최남규, 금재성, 정대철, 손윤규, 정순덕 선생님 등 통일애국열사 합동추모제가 열리다.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방규 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대표, 이천재 서울시연합 의장 등 추모말씀이 있었고 참석자들의 분향헌화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소수영, 모성룡, 송창학, 신현부, 모지희, 김은, ???인혜, 김환진, 권오헌 함께 했음.

- 양심수후원회 이승미 회원의 아버님이신 이양노 화백의 '화력 60년의 회고전'이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3. 22~4. 2까지 열려 양심수후원회원들이 관람하였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1940년)을 시작으로 프랑스 쇼몽(chaumont) 미술관 목우회 초대전 출품에 이르기까지 60년의 작품활동 역사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부위원장,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을 역임한 미술계의 거장이신 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전시작품에는 자화상, '어머니'(작가의어머님), '예술가의 아내'(부인), '이 소녀를'(이승미) 등 인물화를 비롯하여 추상화 '금강1,2...' 회고작까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력 60년의 회고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성룡, 송창학, 신현부, 모지희, 김은, 김환진, 권오헌 다녀왔습니다.

- 광화문 동아일보사앞 마당에서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주최로 '자유언론촛불문화제'가 열리다. 동아투위회원 정동익 사월혁명회 공동대표 사회로 문영희 위원장의 인사말, 신정자 동아투위 위원의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 김동현 위원의 '동아일보사주 김병관 전 회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격려말 박종만 위원의 '포럼 독립언론' 제안설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2부로 문화공연이 있었음. 한찬욱, 모성룡, 송창학, 김환진, 권오헌 함께하다.

- 남과 북 민족단체들이 금강산호텔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를 열고 겨레얼과 자주정신으로 6·15공동선언 실천과 우리겨레 단합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다. 북측에서는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을 비롯한 대표인 40여 명이, 남측에서는 겨레얼 알리기 국민운동본부 한양원 이사장 등 97명이 함께하다.

02

- 지난 3월 30일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의 한미 연합상륙연습이 진행되던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중단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히다.

03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후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군의문사 11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다. 군 의문사위는 이날 "지난 3월 25일, 제3차위원회를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된 총 12건의 진정사건을 검토해 11건은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1건은 자료 보완 등의 사정으로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였다"고 밝히다.

- 제주 4·3항쟁 58주년을 맞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제주도 4·3항쟁 희생자 위령제'가 열리다. 4·3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다.

04

- 서울 국방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평통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점령 노린 불법적 상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철회하라'고 요구하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의 규탄발언과 이승호 한청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윤관웅 국방부장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국방부민원실에 접수 시키다.

- 개성에서 제2차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농민단체대표자회의'가 열림.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남측 농민본부와 북측 농업근로자분과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연 대표자회의에서 올해 농민 통일운동의 방향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제 3회 남북 농민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자는 남측의 제안을 검토하다. 농민들은 공동결의문에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으며 반전평화운동과 민족대단합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기로 의지를 모으다.

05

- 광화문 미대사관 옆 KT빌딩 앞에서 통일연대등 주최로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압박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실천연대 권오창 대표, 민주노총 진경호 통일위원장, 한청 이승호 의장 등 규탄발언과 한총련 황유석 조통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미국산 식용쌀 '칼로스'의 첫 공매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자공매입찰'을 통해 전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앞에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쌀 수입.공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정재돈 농대위 공동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서정의 의장, 전농 장동화 부의장 등 규탄발언과 전여농 윤금순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06

- 민가협 612회 목요집회
- 권오헌 공동의장의 여는말,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만리포해안 북침전쟁연습반대 기자회견 관련 고발건에 대한 규탄발언, 장애인단체 등 차별해소법제정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의 촉구발언, 80년대 해직언론인, 동일방직해고자,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 등 각계발언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권오헌, 강민조, 정종렬 대표와 박희영 사무처장 등 국회의원회관으로 열린우리당 최기식 의원 등 면담 2개법안 처리를 촉구하다.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7일 50개중대의 경찰병력과 700여 용역직원, 6대의 포크레인을 동원 황새울 들녘에서 수로와 농로 등 파괴하고 3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었다며 6일밤에 대추리로 집결할 것을 공지하다.

07

- 황새울에 물을 대는 농수로 2호선, 3호선이 콘크리트로 막히고 황새울로 진입하는 다리가 끊어지는 등 '평택 미군지기 확장 예정 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측의 '농수로 차단' 작업이 진행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노동자, 학생 등은 완강하게 저항하여 용역 집달인들과 경찰들을 몰아냈으며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285만평의 논 60%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1호선을 지켜내다. 584일째 주민촛불문화제가 계속되다. 이날 평택지킴이 중 연행자는 총 31명, 부상자는 총 10명으로 현재 집계되었으며 각각 수원중부서에 3명, 군포서에 3명, 경기광명서에 7명, 광주서에 11명, 성남분당서에 7명 등 나뉘어 연행되다. 경찰관계자는 연행된 31명 중 지난 3월 15에 연행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식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8일 오후 5시 이후에 범대위 사무처로 구속 영장 발부 인원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대추리 주민 등 부상자 10명은 손목에 금이가 깁스를 하고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는 이날 국방부가 황새울 들녘에서 농수로 등 파괴행위에 저항하는 평택지킴이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함에 따라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신용관, 강원동, 윤민진 등 활동가들을 면회 격려하고 다시 군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장도정, 배인석, 손상영 활동가들을 면회 격려하다.

- 남북은 한·미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으로 연기되었던 '제8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21~24일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 남과 북 해외 과학자들이 지난 5~6일 동안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민족과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북측에서는 변영립 국가과학원원장 등 과학자들이 참가했고 남측에서는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대표단이 재중, 재미, 재일 과학자들도 함께 했으며 정보기술분과, 나노기술분과, 생물공학분과, 환경공학분과로 나누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다.

- 농민들의 반발 속에서 이날 오전 전북 군산항에서 태국산 쌀의 하역작업이 시작되다. 40㎏짜리 포대로 포장돼 컨테이너에 실려 들어온 이 쌀은 식물검역과 규격심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 경기도 내 3개 양곡창고에 보관되며 식품가공용으로 민간에 공급될 예정이다. '식량주권수호 우리 쌀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소속 농민 20여명은 트랙터와 트럭 10여대를 동원해 군산항 입구를 막고 6일 오전부터 이틀째 천막농성을 벌이다.

08

- 이민숙(영신고 교사)회원님께서 부친상(고 이유행 님)을 당하셨습니다.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문상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호현, 권오헌 다녀오다.

-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민청학련운동정신계승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등이 공동주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통일연대, (사)유가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후원,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주관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인혁당 민주인사 31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최광기씨 사회로 추모의례, 오신분 소개, 경과보고에 이어 문정현신부, 백락청 6·15 남측위원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등 추모사, 이철수 화백의 유족들에 '판화시'증정, 홍순관 가수의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권경미(고 도예종 선생의 손녀)외 발레단의 추모공연 등이 있었고 참가자들의 헌화와 사형장 참배 등이 있었음.

09

- 박정희 유신독재 아래에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사건 조작으로 사법살인당한 4·9통일애국 31주기 추모제가 추모제준비위원회 주최로 대구 2·8기념 중앙공원에서 유가족과 정당, 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이보다 앞서 서울과 대구·경북 행사추진위원, 학생등 150여 명을 칠곡 현대공원묘역으로 하재원, 도예종, 송상진, 여정남 열사 묘소 참배를 하였음.

10

- 전남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부근에서 수입쌀 입항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농민연대 농민 16명이 바다에 투신, '수입쌀 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등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다.

- 지난 7일,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국방부의 영농방해 행위를 저지하다가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6명의 평화·인권 활동가 중 팽성주민대책위 장도정 홍보부장(34)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신용관(47)전 통일위원회위원장이 구속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평택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5개단체와 주민등은 '경찰폭력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중단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음.

- 민주노총이 10일 '세상을바꾸는투쟁'에 돌입하다. 세상을바꾸는투쟁은 연맹별 순환파업 · 항의집회 · 공동수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10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파업에는 최소 16만 3천 7백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다.

11

- 국방부가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폐쇄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확장이전지역 농수로를 주민들이 원상복구하다.

- '민주통일지사' 장석정 선생이 천안 단국대 병원에서 별세(향년 75세). 선생은 87년 6월항쟁이후 대전 지역에서 범민련 활동과 실천연대, 통일연대 고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6 · 15 공동위 대전충남본부 고문 활동을 해 오던 중 올해 1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정문에서 79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려 강제토지수용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다. 주민들과 사회단체, 평택지킴이 등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문정현 신부, 도두2리 이상열 이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황재우 반미청년회 회장, 최복렬 범남본 대외협력국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 광화문우체국 북한자료센터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진행. 이날은 '민족과 운명 제52부-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 제5부'를 관람했음.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려 내각의 과업과 예산, 과학기술정책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검토 승인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4(2005)년의 사업정형과 주체95(2006)년 의 과업에 대하여 ' 라는 주제로 의정보고를 했고,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 주체94년 국가예산집행결산과 주체95년의 국가예산에 대하여 '란 주제로 의정보고를 했다고 하다.

12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금융관련 시민단체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저지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기자회견을 열다.

-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6기 통일연대 1차상임대표자회의를 열다. 보고안건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① 5 · 18 26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 ② 6 · 15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논의 ③ 한 · 미동맹의 전략적 재편에 대한 논의 ④ 통일연대 고문 ·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논의 등 안건을 토의 처리하다.

- 노량진 농수산물유통공사(경기지사) 정문 앞에서 한.미FTA농축수산비대위(농대위) 소속 농민들이 '미국쌀 수입 및 시판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노량진 농수산물유통공사 저장창고에 들어가 시중 유통용으로 미국산 '칼로스'쌀 20kg용 7,800포대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쌀포대를 뜯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거칠게 항의하다.

13

- 민가협 613회 목요집회 — 조순덕 운영위원 여는말,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평택상황 보고,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신용관 활동가 석방촉구 발언, 임선순 회원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 촉구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을 규탄하다. 김지태위원장의 여는말,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등 규탄발언과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갈월동 전국연합회의실에서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 남측본부 2006년 정기중앙운영위원회를 열다. 보고안건과 사업평가에 이어 전민특위 남측본부 운영규약 본검토와 2006년 남측본부 위원장, 감사, 집행위원장 등 선임안을 토의 처리하다.(위원장-이규재 범남본 의장, 감사-김규철 범남본 서울시연합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집행위원장-안응찬 통일연대 대전?충남대표) 이어 2006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심의채택하다.

14

- 서초동 서울중아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판사 심리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사건 3차공판이 열리다.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강정구 교수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 분명하게 반박하다. 심문이 끝나고 증거와 증인 채택 등이 있었음. 이날 재판이 끝나자 보수우익세력들이 폭언 등 행패를 부리다.

- 대추초등학교에서 순환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연맹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경기노동자 대회'를 열다. 조준호위원장의 대회사, 금속노조 이시욱 부위원장 등 결의발언 놀이패 '걸판'의 풍자마당극공연 등이 있었음. 또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김용환 대표,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 등 연대발언이 있었음. 결의대회는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의 4대요구사항쟁취투쟁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등 결의하며 마치고 '캠프 험프리' 옆길을 따라 시위행진을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174호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이성한, 모지희, 이용준, 김은, 김환진, 권오헌, 민가협 어머니들 함께하다.

15

-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 반민주 반인권 국방부 규탄대회'를 열고 국방부의 대화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집회를 마치고 평택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이 국방부 민원

실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다.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 각계 사전 결의마당에 이어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교수, 영화인, 시민 등 1만5천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대회'를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종렬 대표의 대회사와 각계대표의 결의발언, 문예공연 등에 이어 영화인, 노동자, 농민대표가 함께 결의문을 읽다. 이어 각계대표들이 범국민 항쟁을 알리는 봉화를 올리면서 대회를 마치고 집회 후 종로방향으로 행진해 종각역 앞에서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 결의대회'를 열고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다.

16

- 양심수후원회 4월 산행의 날—우이동 그린파크 앞에서 모여 북한산 소귀천 계곡–대동문–진달래능선–4 · 19국립묘지로 내려오는 산행을 하였음. 모두 23명이 함께하여 최근년에 처음보는 맑고 화창한 날씨 그래서 진달래가 가장 아름답게 온 산하를 물들인 날이었음. 대동문 가까이에서 갖춰온 도시락과 시원한 막걸리로 배를 채우고 진달래능선을 내려오며 기념촬영도 하였음. 4 · 19묘지 가까이 내려와 편안한 곳에 자리잡고 참가자 소개시간과 최근 정세에 대한 보고에 이어 고 문한영 선생님 추모시간을 갖고 4 · 19묘소참배를 하다. 송세영, 김교영, 변숙현, 류종인, 소기수(사모님 함께), 이규재, 조순덕, 이영, 윤달임, 송무호, 신현익, 이병건, 박미정, 이호연, 이호준, 이은재, 나순석, 나민지, 나민정, 이용준, 김호현, 권오헌 함께했음.

17

- 통일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1지방선거 공천비리, 한나라당은 매관매직을 강력 비판하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단과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사이의 당면과제에 대한 간담회가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있었음. 계승연대에서는 박중기, 권오헌,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박석률 국보특위위원장, 이영주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하경렬 위원장, 정동익 위원, 김삼웅 위원 외 3명의 위원과 정병일 지원단장이 함께하고 간담회는 보상심의위원회운영문제, 명예회복법 개정문제, 복직권고자에 대한 후속조치문제, 백서발간문제 등에 의견을 나누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12차 운영위원회와 총회준비위원회 2차회의를 갖다. 운영위에서는 사업 · 회계보고에 이어 • 전민특위 가입건 • 북녘어린이 돕기 콩우유 보내기 운동 • 대추리 농사짓기 등을 토의하여 결의하다. 이어 총준위에서는 18차년도 예산안, 모범회원 등을 심의 채택하고 총회순서와 역할분담 등 결정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2006년 1,2,3월 회계 및 사업 감사를 강정구 감사로부터 받았음.

- 국방부는 4월말까지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신설하도록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18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의료.환경.농축산 부문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중단을 촉구하다.

-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사월혁명 46주년 제17회 4월혁명상' 시상식 및 특별강연회가 열림. 사월혁명회 회원과 사회단체 성원 등 1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정동익 공동대표의 사회로 노중선 상임대표의 대회사, 한청 이승호 의장, 한총련 장송회 의장 등 결의발언, 곽태영 공동대표의 '4월혁명 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이어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에게 제17회 사월혁명상을 시상하다. 김지태 위원장의 수상소감,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2부에서는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의 '6 · 15 시대에서 본 4월혁명과 통일운동의 의미'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음.

19

- 한미간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한미전략대화 공동성명)'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6명공동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농축산, 노동, 영화인,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교수, 학생, 금융, 공공서비스 분야 인사들은 '4 · 19혁명 46주년'을 맞아 각계를 대표하는 419명의 의견이 담긴 '419인 시국 선언'을 하다. 선언에서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다.

- 수유동 국립4 · 19민주묘지 기념탑 앞에서 사월혁명회,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공동주최로 '4 · 19혁명 46돌기념 합동참배식'이 열리다.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대표의 여는말 정광훈, 한상렬 조준호 문경식 의장 등 기념사, 곽태영 사월혁명회 통일위원장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제단에 분향, 헌화를 하다.

20

- 일본 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배타경제수역(EEZ) 침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대표의 여는말, 양미강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의 규탄발언, 이승호 한청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반미청년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통사 주최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을 가짐.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건너편에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오염자 주한미군이 치유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농성에 들어가다. 농성은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낮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국방부 앞 1인 시위 등으로 한미당국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 민가협 614회 목요집회 —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한 · 미FTA와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를 통해 본 미국 종속관계'에 대한 발언,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의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발언 등이 있었음.

- 종로 낙원동 이문학회에서 장기구금양심수로 가장 존경받는 한학자 이구영 선생님 87회 생신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음. 신현칠, 김수룡, 김교영, 변숙현, 송세영, 임방규 선생님들과 이구영 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여 생신떡을 자르고 만수무강을 빌었음. 이구영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한찬욱, 변의숙, 권오헌 함께하다.

21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와 검.경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방부와 경비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2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다.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크레인 점거 농성으로 전원 연행된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현대하이스코 사측에 확약서 이행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다.

-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권순만 지회장과 안병욱 직무대행, 주국제 조직쟁의부장, 진 환 소위원, 오성범 조합원 등 GM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 5명에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다.

-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 할 남측대표단이 서울을 떠나 직항로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 북측 대표단의 마중을 받다. 남측대표단은 고려호텔로 옮겨 북측 권호웅 단장 등의 마중도 받았고 저녁에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박봉주 내각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남측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박병원 재경부차관, 유진룡 문화부차관, 이판세 통일부정책홍보실장, 한기범 통일부 국장 등이며 북측대표단은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진식 내각참사,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이었음.

22

-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이촌, 양화지구 7개 축구장에서 〈통일뉴스〉와 〈민족21〉, 〈민주평통 서울시협의회〉주최로 통일을 염원하는 '제1회 6 · 15 Soccer League(축구대회)'가 7개조 2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16강 진출팀을 가리다.

- 고려대 학생의 출교 조치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교육과 사회의 정립에 앞장설 것을 권고하며, 부당한 징계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다.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이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 점거 농성을 하다. 전원 연행된 노조원 가운데 12명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다.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4 · 19정신계승 수구척결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지방선거 매관매직 등을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이다.

- 옴시롱감시롱 회원들(양심수후원회원 함께) 팽성읍 대추초등학교를 방문 평택범대위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599회 촛불문화제에 함께하다. 촛불문화제에서는 문정현 신부님의 결의발언과 꽃다지, 정태춘, 박은옥씨 등 문화공연과 자유발언 등이 이어지다. 김지영, 김혜순, 이현근, 이상화, 이성재, 김길자, 김민경, 김제현, 신현부, 모지희, 모성룡, 나순석, 노혁, 도은주, 노혜민, 정향숙, 김환진, 권오헌 함께하다.

- 일본의 독도인근 해저탐사 시도로 불거진 한?일 양국사이의 외교갈등이 한국의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장 사이 협상 끝에 미봉되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측은 해저지형조사를 중지하기로 한다. ② 한국측은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 ③ 한 · 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을 들어 앞으로 EEZ의 경계확정회담을 5월 중이라도 국장급에서 재개하기로 한다.

23

-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주민촛불 600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다. 본대회를 마친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20여명의 풍물패를 앞세우고 주민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을 광주로 만들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등불과 촛불을 들고 인근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따라 야간행진을 하였으며 상징의식으로 미군기지 철조망에 100M이상 늘어서서 등불을 매달다. 이보다 앞서 대추초등학교에서는 이곳에 농활을 온 250여명의 대학생들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전쟁반대 평화실현 학생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다.

- 명동 일대에서 장로회 소속 향린교회 주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의 중단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주제의 '한반도 평화 기원 거리 기도회'가 열리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3일째인 이날 남측은 이른바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그러나 이는 냉전시대의 '상호주의'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한 말을 뒤엎는 제안이었음.

24

-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통일연대, 참여연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흥사단, 양심수후원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일행동 네트워크(가칭) 구성관련 간담회'를 열고 독도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왜곡, 전쟁범죄, 군사대국화문제 등에 대응하기로 하다.

- **21~24** 나흘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아래와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다.

①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 ②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 실현을 위해 협력 ③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 ④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 ⑤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⑥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⑦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 ⑧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측의 환경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이 발표되다.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 16주년 기념식을 열다. 문경식 의장의 기념사, 정광훈 민중연대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명수 농림부차관 등 격려사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연대사가 있었고 영화배우 최민식씨를 '우리농업 지킴이 홍보대사'로 위촉했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부대 이전지역인 평택에 군부대를 투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직접 사과 △윤광웅 국방장관 퇴진 △강제토지 수용 전면 중단 △평택 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한 범국민적 대화 전개 등을 요구하다.

-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OO사단 예하 부대가 평택지역으로 부대이동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사병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 등 시위진압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이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제보로 〈민중의소리〉를 통해 보도되다.

2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4일까지 접수된 총 2886건 중 미군 폭격에 의한 집단희생 전형인 '단양 곡계굴 사건' 등 388건에 대한 조사개시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유형별로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자사건이 382건으로 가장 많고, 해방후 권위주위 정권시기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3건, 일제하 민족독립운동 관련사건이 3건 이라고 하다.

- 용산 방위사업청 민원실 앞에서 E-X사업 기종결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6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리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과 김판태 팀장의 도입중단촉구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읽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서 "E-X사업의 후보기종인 E-737과 G-550의 주파수 간섭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종결정 절차를 중단하고 E-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방위사업청 민원실에 접수시키다.

- 지난 1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크레인 점거투쟁 당시 경찰특공대가 현대하이스코 노동자 연행과정 테이져건, 전자총 사용 무리한 진압에 나선 정황이 알려지다.

- 서강대 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한총련 출범 13돌 기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황유석 한총련 조통위원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 의장 등 각계 대표 격려사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한총련 진로와 합법화 관련 정치연설, 역대 한총련 의장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26

- 국방부 앞에서 '평택범대위'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팽성일대 군병력 투입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예정지에 대한 군부대 투입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평택범대위 이호성 상황실장 사회로 최한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이승호 한청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종속적 한·미동맹과 평택기지확장반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열었고 범대위 기자회견에 이어 '평택기지반대 서울시대책위'는 "국방부는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만들 것인가."라며 '평택의 평화 서울의 평화 미국은 이땅을 떠나라'는 기자회견을 열다.

-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민족21〉 창간5돌 기념행사가 열리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이전예정부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에 군병력 투입을 검토중이라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국방부의 평택 군대투입 계획을 비난하고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연대하겠다"고 밝히다.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자단체,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136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다.

27

-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넘게 수배생활을 해오던 12기 강총련 의장 윤민섭(2004년 강원대 총학생회장)씨가 경찰에 연행된 데 이어, 2001년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장 심진, 전남대 회계학과 95학번 이병영씨가 연행되었음이 알려지다.

- 경기민중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예정부지에 투입되는 부대로 제보된 제 7673부대(708특공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병력 투입방침을 강력

히 규탄하다.

-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서울지역 청년단체 회원, 대학생, 여성.인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대추리 일대에 대한 강제집행에 군병력 투입계획에 대한 규탄의 내용으로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다섯번째 서울촛불문화제를 열다.

- 정부가 한미FTA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FTA범국본)' 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 주최로 '삼성 SD???? 분신노동자 금품매수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국장 사회로 권오헌 공동대표의 여는말, 임경옥씨의 경과보고,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변외성 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등 규탄발언, 김세균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 시키다.

- 민가협 615회 목요집회 — 임기란 운영위원 여는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조건없는 2차송환 촉구' 발언, 임선순 회원의 '신용관, 장도정 활동가 즉각석방 촉구 성명서' 낭독, 아그네스 인도네시아 활동가의 인사말 등이 있었음.

- 개성 봉동관 여관에서 6 · 15민족공동위 남북위원장 회의가 열려 6 · 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통일대축전개최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① 6 · 15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6 · 15공동선언발표 6돌을 계기로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합운동을 거족적으로 추동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진행한다.
  첫째, 행사명칭은 '6 · 15공동선언발표 6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약칭 6 · 15민족통일대축전)' 으로 한다. 둘째, 행사는 광주에서 하되 기간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한다. 셋째, 행사규모는 남과 북이 대표 각각 150명 정도, 해외대표는 100여명 정도로 한다. 넷째, 행사내용은 개막식, 6 · 15공동선언실천민족통일대회, '6 · 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부문별단체상봉모임,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 경비행기시험축하비행, 참관 등으로 한다.
  ② 6 · 15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해방 61돌을 계기로 남측, 북측, 해외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북측지역에서 개최한다. ③ 6 · 15민족공동위원회는 이상의 문제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접촉을 계속 진행하며 남과 북, 해외가 적극 협조한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평택 대추리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기간(4.27~5.7)에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미사를 봉헌하다. 대추리 노인회관 옆 작은???소에서 주민과 신자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안승길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올리다.

28

- 27일 현대하이스코 순천 공장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연행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이모(38)씨 등 9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다.

- 국방부가 예고한 제4차 행정대집행기간 이틀째인 이날 팽성지역 일대에 전경버스 60여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가 하면 헬기가 대추초등학교를 저공비행하며 정찰하는 등 평택 4차 강제집행에 대한 작전예행연습을 하다.

-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앞에서 김세진 · 이재호 열사 유족들과 유가협, 민가협, 사회단체 성원들과 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연대학생회장 사회로 '김세진 · 이재호 열사 20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열사 부모님 인사말씀,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공대학생회장의 추모사와 학생들의 추모공연 등이 있었고 유족과 참가자들의 헌화 등이 있었음.

29

-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8차 정기총회가 열렸음.(별도기사)

- 대추초등학교에서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예총, 민족미술인협회, 풍물패 삶터 등과 서울대, 제주대, 추모연대 농활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2차 비닐하우스 콘서트가 열리다.
  지난 2월11일부터 이어진 2006년 대추리 평화예술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리영희 교수,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문정현 신부, 가수 정태춘씨 등이 '황새울에 평화를' 이라는 글귀에 불을 붙여 활활 타게하다.

- 서울대 멀티미디어관에서 '김세진 · 이재호 기념사업회(회장 장유식)' 주최로 동문, 유가협 등 사회민주단체 소속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故 김세진.이재호 열사 20주기 기념식' 이 열리다.

30

- 서울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대학생 500여명이 모여 청년학생투쟁대회' 를 열고 신자유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정규법안 반대, 불안정 노동 철폐,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을지 2가와 명동성당을 거쳐 국철 1호선 남영역 앞에 이르러서는 3개 차선을 막고 시위를 벌이다 미리 준비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과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성조기를 불태우다.